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設置한다

1억원 투입 '자연 + 사람' 상징조형물 설치

포천시는 산정호수와 동베르 CC, 한화리조트가 소재한 산정리에 관광홍보 조형물을 설치기로 용역을 발주해 지난 29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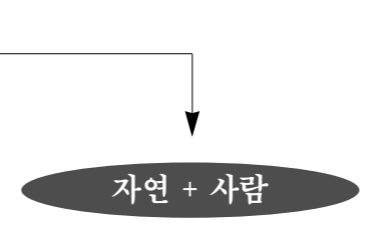
박운국 포천시청 등 각실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서울조형연구소의 김영선 소장의 발표를 진행했다. 조형물은 ▶수도권 관광지인 산정호수와 동베르CC, 산정호수 한화리조트가 소재한 산정리를 찾아가는 어려움 보완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를 안내할 조형물 설치의 필요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될 계획 이다.

영북면 문암리 227-5번지에 설치될 예정인 조형물은 작품명 '자연+사람'으로 가로 4.5m, 세로 1.7m, 높이 7m의 스테인레스



스틸재질로 시공될 예정이다. 또한 유도간판을 설치해 접근성을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사업비는 시부담 5천만원과 동베르CC와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가 각각 2천5백만원씩 부담해 총 1억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조형물 설치를 위한 민간협의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올해 4월 예산을 영북



조형물 중 두 개의 봉우리는 산정호수 명성산을 가운데 두 개의 물결모양은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산정호수를 봉우리의 둥근 원은 명성산 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포천시 로고의 형태적 이미지를 상징하며 전체적으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형상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면으로 배정 11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조형물의 시공 및 설치는 서울조형연구소가 시행하게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⑨ - 수입2리 이장 맹호익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마을로 오세요”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온천으로 유명한 일동면.

금주산자락에 작지만 청정한 마을로 알려진 수입2리.

149세대가 군락을 이뤄 형성된 수입2리는 농업 70%, 자영업 20%, 기타 10%의 구성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인삼, 묘삼, 대삼 등 특용작물이 유명한 마을이다.

현재 수입2리의 이장이자 포천시 통·리장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맹호익(49.사진)이장을 만났다.

마을이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자 “우리 마을은 의지인들이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마을이다”며 “물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그런 거겠지”라고 말을 이었다.

맹 이장은 “마을의 불필요한 폐가를 차츰 없애고 마을 조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수입2리는 과거 이(李)씨와 박(朴)씨의 집성촌이었다. 때문에 마을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갖은 다툼으로 중지되어야만 했었다고 한다.

이런점 때문에 맹이장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우선 어른들을 이해시키고 노력했다”며 앞에서 끌어주고 뒷받침을 해주며 마을 사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이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믿는 맹이장은 주민들에게 마을의 현안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말한다.

“우리마을은 1달에 1번씩 회의를 연다”며 “주민들은 마을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래야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수입2리는 현재까지 마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폐자재를 이용, 꽃길 가꾸기를 추진했다. 또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에 마을 비용 8백여만원을 투자, 건물을 지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앞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묻자 “문화마을 조성”과 “민박유치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부상조라는 말이있다”며 “마을의 잇점을 이용해 발전하면 당연히 시의 수익도 좋아될 것이다”고 말한다. “시에서 일동지역의 관광권 개발을 추진중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세제상의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맹이장은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도 “마을이 발전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렸던 것처럼 협조와 동참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희망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최근 수입2리는 송전탑 건설 문제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한전에서 우리마을 위로 고압 송전로를 건설할 예정이라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



마을주민들과 직접 가진 집의로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맹호익 이장

다”며 “전력이 필요해서 건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지만, 가까운 선로를 두고 굳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위로 송전로를 건설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에서 건설하려는 송전로는 청계산을 지나 일동 온천지구를 거쳐 금주산으로 이어지는 공사로 그사이 많은 마을이 위치해 주민들의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맹이장은 이 문제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해와 협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췌, 혁신경찰 지향을 위한 직장교육

열린시대 국가안보와 혁신된 경찰의 인권보호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28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전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으름 포천경찰 지향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각 기능별 담당현안업무 지시와 함께 최원일 서장의 직원교양교육으로 진행됐다.

최 서장은 교양교육을 통해 소

속 직원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일반 민간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 요구’,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방지’ 등 3가지 사항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외래강사를 초빙, 열린시대 국가안보와 혁신된 경찰의 인권보호,란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췌 제59주년 경찰의 날 행사

“따뜻하고 든든한 봉사 경찰상 정립할터”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21일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59번째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전 경찰관 및 협력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 앞서 서장 및 각 과장, 지구대장의 현충탑 참배가 있었고, 본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전몰경찰관에 대한 묵념, 모범 경찰관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 대통령 치사를 경찰서장이 대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최원일 서장은 치사 대독에 앞서 최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출한 행사로 진행함에 양해를 구했고, 경찰이 ‘인권이 존중되고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며, 인권과 법질서 수호는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찰의 기본책무 강조를 담고있는 대통령 치사를 대독했다.

한편, 행사 전 15분간의 VTR 시청을 통해 경찰혁신의 추진방향 및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 앞으로 우리의 경찰이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2004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용아섬유 직장자위소방대 종합우승



2004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각 직장자위소방대대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있다.

포천소방서(서장 이대열)는 지난 21일 대진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포천시 직장자위소방대 62개팀 5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관내 직장자위소방대 62개 팀이 참가하여 소방호스메고이여달리기, 소화기이용화재진압, 속도방수 등 3종목을 실시했다. 종합우승에는 용아섬유 직장자위소방대가 차지하였으며, 종목별 우승으로는 소화기이용 화재진압 종목에 새턴버스 직장자위소방대, 소방호스메고이여달리기에 대진대학교직장자위소방대가 차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소방서 가산소방파출소 개소식

가산면·내촌면 지역 소방행정 본부 역할 기대



가산소방파출소에 근무하게 될 소방대원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포천소방서(서장 이대열)는 지난 20일 박운국 포천시청, 최원일 경찰서장, 이상만·오병익 경

의용소방대장,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산소방파출소 개소식을 가졌다.

가산소방파출소는 총사업비 11억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38-1등 2필지에 지난해 8월 18일 착공하여 부지면적 637평, 건축면적 201평 2층 규모의 현대식 청사로서 차고 시설, 사무실, 대기실, 의용소방대 사무실등을 시설해 9월 23일에 완공했다. 가산소방파출소는 소방공무원 16명, 의용소방대원 60명, 소방차량 3대로 관할구역 가산면과 내촌면 등 2개면의 각종 재난사고발생에 대비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대열 소방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행정을 펼쳐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이 방재의 기수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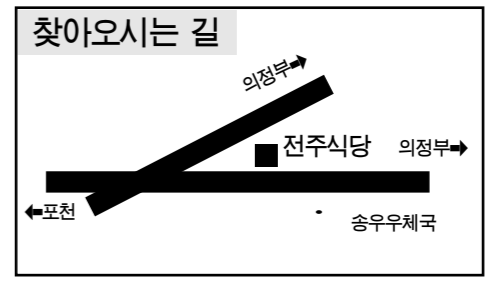
맛의 차별화를 선언한 **한식전문 전주식당**이 정성을 다한

새로운 메뉴를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 아구찜/탕(대 35,000 중 25,000)
 - 꽃게찜/탕(대 55,000 중 35,000)
 - 해물탕(대 40,000 중 30,000)
 - 낙곱전골(대 30,000 중 20,000)
 - 낙지전골(대 30,000 중 20,000)
 - 제주갈치조림 (대 40,000 중 30,000 소 20,000)
 - 가마솥정식백반 7,000
 - 부대찌개 5,000
 - 삼겹살 6,000
- ◆백반 가격인하 8,000 → 5,000

<특선메뉴>
해물탕/꽃게찜/탕/제주갈치조림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8/전화 : 031-542-3912/대표 : 김 형 준